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동국대의료원, 법보신문 일일시호일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치료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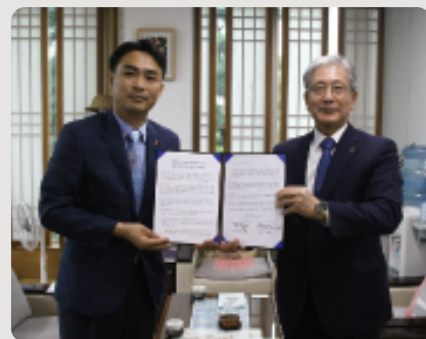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의료원과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대표 심정섭)은 지난 8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의 치료 및 지원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료적 자문과 함께 필요시 대상자에 대한 시술 및 수술 등을 지원한다. 일일시호일은 이주노동자 치료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모금 등을 관장한다.

태석기 의료원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170만 명 이주노동자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의료지원을 할 것이며, 일일시호일과 협력하여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아닌 부처님 가르침인 자비실천 도량, 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올해 3월 법보신문 지면을 통해 스리랑카 출신 뇌성마비 아기 시드미라의 사연을 접하고 재활의학 물리치료와 500만 원 상당의 보조기 등을 지원하며 위로와 희망을 선사한 바 있다.



02 의료원 경영진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동국대학교의료원은 동국대일산병원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일산병원 마스터플랜 수립과 의학계열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을 시행함에 앞서 착수보고회를 지난 8월 29일 본원 5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경영진단은 9월 1일 시작하여 다음해 1월까지 진행되며, 이날 보고회에는 태석기 의료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 및 교직원 150여 명과 컨설팅업체 엘리오앤크퍼니 박개성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성공적인 경영진단을 위해 구성되는 의료혁신 위원회 구성과 목적, 운영방향 및 경영진단 진행계획 보고의 순으로 이뤄졌다.

태석기 의료원장은 “의료원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및 동국대학교 의학계열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뜻을 밝혔으며, 엘리오앤크퍼니는 “일방적인 제시 발전방안이 아닌 다양한 의견청취와 수립과정 피드백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경영진단연구 프로젝트 착수에 앞서 의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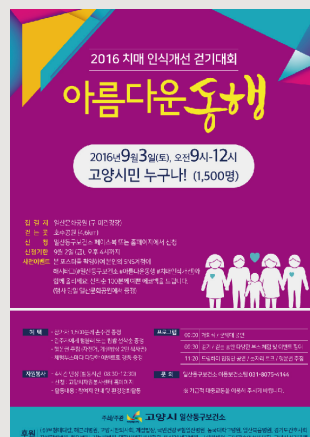
이번 경영진단 연구용역과 관련된 의견은 본원 3층 IRB회의실과 EMR 및 병원홈페이지 전용게시공간을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03 동구보건소 2016 치매 인식개선 걷기대회 행사지원

일산동구보건소에서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을 위한 치매극복 걷기대회를 9월 3일 일산문화공원에서 가졌다.

이날 걷기대회는 고양시민 누구나 전 연령대가 함께 참석하여 치매 극복의 희망을 나누고자 시작됐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퀴즈 미션, 축하공연 등이 이뤄졌다. 또한, 혈압, 당뇨 검사 등 간단한 검사가 이뤄졌으며 이날 행사에 동참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는 이벤트 경품으로 자전거 5대를 지원했다.



알 리 미

덕양구보건소 건강강좌

주제: 심장질환 | 강사: 심장혈관내과 이무용 교수 | 일시: 9월 7일(수) 10시 | 장소: 덕양구보건소